

# 목포시,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 동 행정복지센터·환경보호과에서 신청 접수 2일동안 정밀 측정 후 결과 대여기관에 제출

목포시가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시는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환경보호과(트윈스타 4층)에 라돈측정기를 비치하고, 대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2일 동안 무료로 대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낮아지면

서 재차 홍보에 나섰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생활용품(매트리스, 라텍스, 온수매트)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유해물질이다.

라돈측정기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돈 농도가 높게 측정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트리스 등 침구류의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경우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

활방사선안전센터 홈페이지(www.kins.re.kr/radon) 또는 콜센터(1811-8336)로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신청해 정밀 측정 후 결과를 대여기관에 제출하고, 대여기관은 우편으로 대여기관에 반납하면 된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암군, '고품질 조사료 생산' 파종필지 현지조사 교육

### 17일부터 2주간 파종여부·생육상황 GPS장비통해 실시



영암군은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군과 읍·면, 조사료 경영체 합동으로 동계작물 파종필지에 대하여 파종여부 및 생육상황 등 조사를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GPS장비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지난 9일, 현지조사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군 및 읍·면 담당자, 영암군 조사료경영체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방법 및 조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산 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

을 마친 후, 작물(IRG)이 파종되어 있는 현장으로 나가 장비 및 시스템을 실제 사용해보는 실습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영암군은 작년 기준 5,000여 ha(동계 4,200, 하계 800)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고품질 조사료를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파종필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적절한 제조운송비 지급을 이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한 사료 자급률 향상 및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며, "전국 최고의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

### 수소에너지 중심 '미래에너지도시 영광' 조성 로드맵 제시



영광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월 착수부

고를 시작으로 14개월 간 원전폐로 대응전략 연구결과와 기간별 추진 로드맵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본부장 이재우)은 수소에

너지 중심의 미래에너지 도시로 전환을 위해서 LNG발전소를 도입하여 추출수소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산업특구 조성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하고 폐로지역 특별법 제정, 원전관련 대체 세수 발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폐로 대응전략사업 추진 시 약 5조 3천여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7,0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예상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정립하여 원전폐로 이후 지역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서영암농협산지유통센터, 영암 고구마 홍콩수출 시작



서영암농협(조합장 김원식)은 지난 10일 서영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수출용으로 작업된 고구마 500g 1080봉지를 지난 3일 태국에 이어 홍콩으로 또 수출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보냈다. 이날은 전통 평 영암군수, 신용현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 김원일 농협전남지역본부 부분부장, 문수전 농협 영암군지부장, 김만태 미암면장, 김명선 학

산면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원식 조합장은 "우리지역은 농가의 규모가 작아 개별적으로는 저온저장시설이나 유통관련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는 수확에 전념하고 농협에 출하하면 최선을 다해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조합원 및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 24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연장 접수

무안군은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을 당초 3월 5일에서 3월 2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벼·양파·콩 재배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벼·양파·콩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벼의 경우 약정체결금액의 60% 이내로 월 최대 지급액이 200만원이던 작년보다 50만원 상향하여 농가당 최대 월 250만원, 연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사업에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함평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도로명판·기초번호판·건물번호판 등 훼손 여부 조사 정비

함평군은 오는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총 22,204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로 훼손·망실되거나 잘못 표기된 내용 등을 파악해 시설물

을 정비한다.

또한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골목길이나 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해 군민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단말기를 이

용해 시설물의 훼손, 망실 여부 등 현장사정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어 투입 인력 감소와 조사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안상만 민원봉사실장은 "이번 조사·정비를 통해 시설 노후화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